

BRAHMS

KBS교향악단 x 정명훈의 브람스 III, IV

K B S S O X M Y U N G - W H U N C H U N G ' S B R A H M S

III IV I II IV I

KBS SYMPHONY ORCHESTRA

**MASTERS
SERIES**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2025. 6. 5. THU 20:00

롯데콘서트홀

브람스 | 교향곡 제3번 F장조, 작품 90

ⓐ 33'

J. Brahms | Symphony No.3 in F Major, Op. 90

I. Allegro con brio-Un poco sostenuto(10')

생기 있게 빠르지만, 약간 끌듯이

II. Andante(8')

느리게

III. Poco allegretto(6')

조금 더 빠르게

IV. Allegro-Un poco sostenuto(9')

경쾌하게-조금씩 길게 끌어가며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브람스 | 교향곡 제4번 e단조, 작품 98

ⓐ 39'

J. Brahms | Symphony No.4 in e minor, Op. 98

I. Allegro non troppo(12')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II. Andante moderato(11')

적당히 느리게

III. Allegro giocoso-Poco meno presto(6')

활발하고 익살스럽게-조금 덜 빠르게

IV. Allegro energico e passionato(10')

힘차고 빠르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 총 소요시간 : 약 100분 (인터미션 포함)

* 총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지휘 정명훈

MYUNG-WHUN CHUNG
CONDUCTOR

“그는 영적인 지휘자” <르 몽드>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이 시대에 가장 깊은 존경과 추앙을 받는 지휘자 중 한 명이다.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등 세계 최정상급 교향악단을 지휘했으며, 세계 유수 오페라극장의 포디움에 올랐다. 독일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피렌체 테아트로 코무날레 수석객원지휘자, 파리 오페라 바스티유 음악감독, 로마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서울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했고, 현재 KBS교향악단 계관지휘자,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수석 객원지휘자, 도쿄 필하모닉 명예예술감독 및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년 3월 이탈리아 라 스칼라 필하모닉 역대 최초 명예지휘자로 임명되었으며, 2027년부터는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247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인 음악감독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1990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은 정명훈은 오페라 바스티유와 함께한 메시앙의 ‘투랑갈릴라 교향곡’을 시작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제2번,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등 도이치 그라모폰에서만 40개가 넘는 음반을 발매했다.

2011년 평양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평화 교류에 공헌했으며, 2017년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캐나다의 정상들이 참석한 G7 국제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연주회에서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등 음악을 통한 인도주의적 대의 실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클래식 음악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대한민국 최고 문화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고, 1991년 프랑스 극장 및 비평가 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음악가 상’, 2011년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등급의 문화예술공로훈장인 ‘코망뒤르’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3년 이탈리아 베니스의 ‘평생음악상’, 2017년 이탈리아의 국가공로훈장을 수여받았다.



MYUNG-WHUN
CHUNG

J H A N N E S

서양 음악사를 빛낸 수많은 작곡가들이 언제 어떻게 작품을 발표했는지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예술 세계는 결국 그들 삶의 희로애락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을 대표하는 음악가 중 한 사람이자 낭만주의의 세계를 굳건하게 구축했던 요하네스 브람스가 지은 네 편의 교향곡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브람스를 직접 마주한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브람스는 마흔 셋의 나이에 생애 처음으로 교향곡을 발표했다. 함부르크에서 보냈던 고단했던 어린 시절부터 음악의 위인들과 함께 빈에서 영면에 들기까지, 부지런히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바빠 지낸 그의 삶을 따져보아도 교향곡의 등장은 분명 꽤 늦은 편이다. 기악 독주곡부터 협주곡, 실내악과 교향곡 등 다양한 편성의 작품 수어 백편을 부지런히 창작했던 그것기에 교향곡 발표에 열을 올리지 않았던 일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재미있게도 이토록 성실했던 창작의 삶을 살았던 그가 유독 교향곡 발표를 늦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따라가 보면 의외로 단순한 결론에 이른다. 어떤 형편이나 상황 때문이 아닌, 바로 그의 마음이다. 예술가의 예술 작품이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섭리를 생각해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물론 그가 교향곡 작곡에 애초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가정도 할 수 있으나, 그와 그의 지인들이 남긴 기록들이 이 가설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는 베토벤과 베토벤이 남긴 9편의 교향곡을 깊이 존경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거인을 떠올리면, 누구라도 편히 교향곡을 쓸 수 없을 것이다”는 그의 심경은 지금까지 전해질 정도다. 베토벤이 남긴 9개 교향곡의 존재와 베토벤에 대한 그의 순수한 마음은 십사리 교향곡 작업을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 그는 베토벤 이후의 음악들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마저 갖고 있었는데,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이후에 발표되는 모든 새로운 교향곡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자청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그는 베토벤 이후의 새롭고 발전적인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일에도 큰 부담을 느꼈다. 베토벤의 음악 세계를 존경하는 동시에 그를 넘어선 새로운 어법을 창조하고자 했던 것이 브람스가 추구했던 궁극의 목표였던 셈이다. 또한 평소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야 했던 완벽에 대한 그의 성격도 교향곡의 늦은 출발에 한몫했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슈만의 예언처럼 새로운 시대를 위해 결국 이상적인 음악을 만들어냈다.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그는 여러 편성의 작품들을 작곡하며 교향곡을 지을 토대를 마련했다고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는 마흔 셋이 되던 해부터 예순이 되던 해까지 아주 오랫동안 준비했던 교향곡에 대한 열정을 악보로 옮겨갔다. 총 네 곡의 교향곡을 마치 화려하고 성대한 축포처럼 발표했다. 물론 이 교향곡들은 하루아침에 탄생한 작품이 결코 아니다. 오랜 세월 그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채 악보에 적었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던 교향악의 영감이 다양한 작품을 오가며 쌓여 이룬 성과이기도 하다.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했던 그가 지은 교향악의 악상들은 거대하고 아름다우며 또한 첨예하게 설계되었다. 지금까지도 낭만주의의 한 획을 그은 큰 작품들로 칭송받는다. 베토벤과 그리고 베토벤 이후의 희망을 바라며 지은 대서사시로 불러 마땅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교향곡에 대해 “나의 교향곡은 길고, 어떤 특별한 매력은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이 또한 그가 어떤 성품이었던지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다. 이것이 그가 남긴 네 편의 교향곡들이 오늘날까지 빛나게 된,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이야기다.

B R A H M S

브람스 / 교향곡 제3번 F장조, 작품 90

J. Brahms / Symphony No.3 in F Major, Op. 90

작곡연도 1883년 5월-10월
초연 1883년 12월 2일, 독일 비스바덴(Wiesbaden)
편성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콘트라바순,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2, 베이스트롬본, 팀파니, 현 5부
연주시간 약 33분

1883년 1월 50세가 된 브람스는 우연히 오페라 가수이자 알토 성악가였던 헤르미네 슈피스의 노래를 들었다. 당시 슈피스는 브람스의 가곡을 무척 매력적으로 해석해 불렀는데, 브람스는 슈피스의 음악성에 반했다. 슈피스도 브람스를 음악적 위인으로 존경했다. 이렇게 두 사람은 25세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음악적 친구가 됐다. 브람스가 슈피스에게 일방적인 구애를 했다는 기록들도 있으나, 확인이 불가한 에피소드다. 어떤 이유에서든 슈피스의 고향인 비스바덴으로 브람스가 여름휴가를 떠났다. 이 시기에 브람스는 <교향곡 제3번> 구상을 시작했다. 이미 그의 <교향곡 제1번>·<제2번>이 큰 성공을 거둔 지 6년이 지난 시점이었음에도, 심적으로 여전히 그는 교향곡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한여름의 자연 속에서 그는 세 번째 교향곡을 진지하게 시작했다. 약 5개월 후 여름휴가를 마치고 빈으로 돌아갔던 그는 자신의 교향곡 중 가장 짧은 규모의 <교향곡 제3번>을 마침내 완성했다.

총 4악장으로 구성된 <교향곡 제3번>은 모든 악장의 마지막이 부드럽고 친밀하게 끝나는 공통점이 있다. F음은 주요 주제의 첫 음이며, 교향곡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구조다. 브람스 최초의 전기 작가였던 막스 칼베크는 이 작품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Frei aber froh)를 뜻하는 독일어 약자 FAF 음정을 사용한 것, 특히 A음에 내림표를 사용한 것으로 당시 브람스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단어의 앞 글자를 음정과 맞추어 음을 만들던 방식은 당대 여러 음악가들이 즐겨했던 일종의 농담과 같은 요소이다. 이 작품에서 브람스가 사용한 의미는 그의 음악적 친구였던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아힘의 음악 모토인 ‘자유롭게 그리고 외롭게’(Frei aber einsam)을 뜻하는 FAE 음정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는 완성한 <교향곡 제3번> 악보를 클라라 슈만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보냈다. 클라라는 “얼마나 멋진 작품인가! 얼마나 멋진 시인가! 가장 좋아하는 악장이 무엇인지 결코 말할 수 없다. 모든 악장이 하나의 조각, 심장의 한 박동, 모두 보석 같다”는 극찬의 답장을 보냈다. 이후 이 작품은 1883년 12월 2일 한스 리히터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의 연주로 빈의 황금홀에서 초연되었다. 당시 이 작품은 브람스의 세 번째 교향곡이라는 사실에서부터 대단한 화제를 모았고, 초연 후에도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 지휘를 마친 한스 리히터는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과 비슷하다”라는 후감을 남겼다. 그러나 이에 대한 브람스의 의견은 따로 전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람스는 다음에 발표해야 할 교향곡에 대한 걱정에 빠졌다. “청중들이 다음 교향곡에 기대하는 바를 나는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다”라는 편지를 남겼을 정도다. 또한 그는 초연 6주 후에 “이제 유명한 F장조 교향곡의 명성 때문에 잡혀있는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싶다”는 편지를 쓰기도 했다. <교향곡 제1번>을 쓰기

까지 걸렸던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당연했고 또 예정된 부담감일 테다. 평생 그에게 교향곡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향곡 제3번>은 영화 <이수>(1961)를 포함한 유명 영화들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며 오늘날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I. 생기 있게 빠르지만, 약간 끝맺이 Allegro con brio-Un poco sostenuto

F-Ab-F 음이 밝고 안정적인 속도로 나아간다. 현악기가 주제를 끌어가며 금관과 목관악기에서 차곡차곡 이어간다. 작은 낭만의 선율들은 강렬한 동기로 발전해 간다. 불안정한 리듬 구조에 쌓인 오케스트라 모든 악기들의 노래가 흥겹다.

II. 느리게 Andante

고요하고 편안하다. 목관악기의 아름다운 노래는 현악기와 함께한다. 따사로운 햇살처럼 비추는 오케스트라의 음색들이 브람스만의 서정적 움직임을 보여준다. 클라라 슈만은 2악장에 대해 “순수한 낙원, 시냇물 소리와 곤충들의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자연의 즐거운 품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다”라는 감상을 브람스에게 편지로 보냈다.

III. 조금 더 빠르게 Poco allegretto

클라라 슈만은 “세 번째 악장은 진주이지만, 비탄의 눈물에 담긴 회색 진주”와 같다는 느낌을 남겼다. 그의 감상처럼 이 악장의 정서는 슬픔이다. 아득한 선율의 노래는 느려지는 대신 조금씩 빨라진다. 그 가운데에서 맴도는 선율들이 점점 거세어졌다 다시 사라져간다. 특히 호른의 노랫소리가 아름답다.

IV. 경쾌하게-조금씩 길게 끌어가며 Allegro-Un poco sostenuto

브람스는 마지막 악장에 단조를 사용해, 당대의 관습에 도전했다. 극적인 멜로디와 화성의 전개 속에서 솟아 오른다. 힘차고 밝은 노래들이 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듯하다. 웅장한 타악기의 울림들이 재빠르게 상승하는 선율들을 감싸안는다. 이 걸음들은 아주 작은 소리의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고요한 가운데에서 1악장의 F-Ab-F의 주제가 울리며 사라진다.



브람스 / 교향곡 제4번 e단조, 작품 98

J. Brahms / Symphony No.4 in e minor, Op. 98

작곡연도 1884년-1885년

초연 1885년 10월 25일, 독일 마이닝겐(Meiningen)

편성 플루트 2(제2플루트는 피콜로를 겸함),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콘트라바순,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2, 베이스트롬본, 팀파니, 현 5부

연주시간 약 39분

“
**나는 정말로 두렵다. <교향곡 제4번>이 이곳의 기후 맛이 나지 않을까 싶다.
이 지역에서는 체리가 익지 않는다. 청중들이 맛있게 먹을 수 없으면 어쩌지!**
”

1885년 9월 브람스가 지휘자 한스 폰 뷔로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 발췌

1884년에서 1885년의 여름까지 브람스는 자신의 여름 별장이 있던 뮌헨에서 <교향곡 제4번>을 완성했다. <교향곡 제1번>이 초연된 지 정확히 10년 만의 일이다. 당시 그는 초연 무대를 빈이 아닌 뮌헨에서 직접 지휘할 결심을 했다. 이러한 사연에서 그는 마이닝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한스 폰 뷔로에게 그의 새 교향곡을 받아들여주길 바란다는 편지를 보냈다. 이미 자신의 교향곡들이 모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브람스는 여전히 새로운 교향곡을 선보임에 자신이 없었다. 그의 걱정과 달리 한스 폰 뷔로는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에 대해 “거대한 작품이다. 첫 음표부터 마지막 음표까지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를 발산한다”며 환호하며 응원했다.

브람스는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교향곡이 될 것을 예상했던 걸까. 유독 <교향곡 제4번>에 대한 주변의 반응을 궁금해 했다. 공식적인 초연 전에 브람스는 피아니스트 이그나츠 브릴과 함께 두 대의 피아노용 버전으로 편곡한 작품을 몇몇 지인들 앞에서 연주했다. 이후 브람스는 바라던 대로 1885년 10월 25일 마이닝겐 궁정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교향곡 제4번>을 초연했다. 청중들은 매 악장이 끝날 때마다 박수로 화답했다. 심지어 연주회가 끝난 이후에도 외국에서 온 청중들과 귀족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브람스는 남은 청중을 위해 더 열정적으로 지휘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열광적인 반응에 힘입어 이 작품은 1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연주되었고, 다음 해 4월까지 유럽 20여개의 도시에서 초연하며 대성공을 거뒀다. 브람스 음악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음악 비평가 에두아르트 한 슬릭은 “가장 아름다운 상상력의 자유가 결합되어 있다”며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에 찬사를 보냈다.

“
**오랜 나의 슈만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난 그 누구에게도 모든 영혼을 바치지 않아.
외로운 삶이 아니겠어. 우리는 세상 너머에 불멸이 있다고 믿을 수 없어**
”

1896년 브람스가 연상의 친구이자 독일의 시인 클라우스 그로트에게 쓴 편지 중 일부 발췌

<교향곡 제4번>이 초연 후 성공가도에 진입한 후, 브람스에게 큰 슬픔이 찾아왔다. 청년 시절부터 백발이 무성하게 될 때까지 그의 곁에서 진심어린 우정을 나눴던 클라라 슈만이 1896년 5월 20일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시기부터 그의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왔다. 1897년 간암의 첫 증상이 나타났고, 브람스를 염려한 의사들은 황달이라는 증상을 들어, 브람스의 마음을 임시방편으로 안심시켰다. 당시 그는 회복을 위해 보헤미아의 칼스바트에서 온천 휴양을 갔다가, 다시 빈으로 돌아왔다. 1898년 3월 3일 그는 한스 리히터가 지휘하는 그의 <교향곡 제4번>의 연주회에 참석했다. 이날이 그가 공식적인 마지막 외출을 했던 날이다. 당시 청중들은 모든 악장에서 박수하며, 거장 브람스에게 작별의 인사를 보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인 4월 3일 브람스는 세상을 떠났다. 생전 불멸이 있다고 믿을 수 없었던 그의 말처럼 그의 삶도 끝났다. 그러나 그가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이 작품은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교향곡에 대한 그의 진실했던 마음을 전하고 있다.

I.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Allegro non troppo

굉장히 고독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일렁인다. 평화롭고 동시에 독특한 분위기를 이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오케스트라 모든 파트의 음향을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의 움직임이다. 서정적인 현악기 파트의 선율 진행은 목관, 금관 악기와 함께 점점 더 브람스만의 색채를 드러낸다.

II. **적당히 느리게** Andante moderato

호른의 노래를 시작으로 목관 악기들의 앙상블이 천천히 나아간다. 마치 정상을 향해 등정할 준비를 하는 듯하다. 점점 음향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며 거대하면서 동시에 가녀린 주제를 들려준다. 화려한 무반주로, 마지막에는 현악기의 모든 파트가 합세해 힘찬 하모니를 연주한다. 악장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동안 금관 악기와 타악기는 긴장감을 드러내는 화성 속에서 역동적으로 활약한다. 모든 파트의 악기들은 굉장히 서정적인 사색의 선율을 노래하다가, 처음으로 돌아가 고요하게 사라진다.

III. **활발하고 익살스럽게-조금 덜 빠르게** Allegro giocoso-Poco meno presto

무척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의 악장이다. 브람스의 모든 교향곡 중에서 유일한 스케르초 성격을 가졌다. 관악기들의 재빠르며 쾌활한 움직임은 타악기와 현악기를 오가며 흥겹게 나아간다. 웅장하고 재미있는 모든 파트 악기들의 앙상블이 반복되는 주제를 브람스표 교향악의 음성으로 강렬히 강조하며 울려 퍼진다.

IV. **힘차고 빠르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Allegro energico e passionato

목관, 금관 악기의 강렬한 시작은 오케스트라의 모든 파트로 이어진다. 굉장히 빠르고 갑자기 고요해지고 다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성은 브람스가 존경했던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초기 작품 중 하나인 <칸타타 BWV 150>의 마지막 구절에서 영감을 빌려왔다. 브람스가 만든 8마디의 주제는 무려 30회 다른 변주로 이어진다. 브람스만의 웅장하고 광활한 어법이 경쾌하고 긴 선율을 통해 마지막으로 향한다.

글 | 정은주(음악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최정상급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현장에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되며, 공연 외에도 방송프로그램 및 콩쿠르 사업, 지역과 연계한 음악제, 기업 후원의 공익연주회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 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공식 연주 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2024년 8월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아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콘텐츠를 선도하며, 코로나 시대에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디지털 K-Hall' 아카이브를 오픈하여 고품격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교향악단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여 실버 버튼을 받은 후, 현재는 구독자 수가 18만 명을 넘어 아시아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사장 이승환

단원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 ^{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운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신예은 신지현

제2바이올린 권민지 ^{수석} 임정연 ^{부수석} 안지현 ^{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지민 이유진

비올라 진덕 ^{수석} 한넬리 ^{부수석}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첼로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안예진

더블베이스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조성호

클라리넷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트럼펫 남관모 ^{수석} 김주원 ^{부수석}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윤지언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탐파니 이원석 ^{수석}

타악기 Jason Yoder ^{수석}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Akihiro Miura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

플루트 Tomer Amrani ^{수석}

클라리넷 Ron Selka ^{수석}

호른 Mischa Greull ^{수석}

트롬본 주인혜 ^{수석}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최란희 **사원** 허효정 인턴 전의범 황세빈
공연지원파트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강길호 차장 이한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차하영 장태형

경영관리팀 팀장 손대승 차장 유연철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후원금액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포함 교통, 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 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VIP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통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o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Tel 02-6099-7407, 010-4932-3061, andy@kbssymphony.org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상임이사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KBS 시청자센터장
			한경천 KBS 예능센터장
			김병진 KBS 라디오센터장

후원회 명단

- Concerto**
-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 김정수 (주)제이에스엔에프 회장
 -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 이영애 배우
 -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 NH-Amundi자산운용

- Cantata**
-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 / 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 김명환 (주)덕신하우징 회장
 - 김효수 (주)효석 대표
 - 문양호 ㈜동영관광 대표
 - 민성우 에스엠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
 - 박은관 (주)시몬즈 회장
 - 박정욱 전)KBS교향악단 사장
 -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 신한투자증권
 - 안국약품(주)
 -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 이운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 이재영 L&T텍세스 회장
 - 이충희 (주)듀오 회장
 -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 최명배 (주)엑시론 사장
 - 허승현 PHA 사장
 - 한국산업은행

- Nocturne**
- 교보문고
 - 국은주
 -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 김영기 변호사
 - 이종원 H&O 코리아 대표
 - 이항일 (주)하어스엠 대표
 -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칼 대표
 - NH투자증권

- Prelude**
- 곽동욱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 김도영 변호사
 - 김승중 전)KBS감사
 - 김영선 KBS PD
 - 김영철 배우
 - 김용
 - 김은영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대외협력 이사
 - 김중윤
 - 김진오 변호사
 - 김한나 변호사
 - 김희연 전)KBS교향악단 첼로 단원
 - 노기용
 - 박상현 (주)발렉스 대표이사
 - 박옥균
 - 배흥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 양영은 KBS 앵커
 - 오지연 변호사
 - 유수엽
 -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스 대표
 - 윤종효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 장희웅 변호사
 - 장희진 올리브클래식 대표
 - 전병율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승환 변호사
 - 정용실
 - 정인채 (주)초록숲 대표
 -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 조용상 가천대학교 교수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02-6099-7400
-  02-6099-7416
-  www.kbssymphony.org
-  facebook.com/kbssymphony
-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 (혹은 'kbssoforever')
-  [kbssymphonyorchestra](https://instagram.com/kbssymphonyorchestra)
-  youtube.com/@KBS_Symphony_Orchestra